

교구본사주지 워크숍 인사말씀

존경하는 중앙총회 의장스님과 교구본사주지스님, 그리고 중앙총회 의장단 및 분과위원장 스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불교중흥을 화두로 한 자리에 모여, 종단의 미래를 위한 탁마의 장에 함께 해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진행하는 워크숍은 우리 종단 중흥을 위한 의미있는 한걸음이 되어줄 것이며 이 자리를 통해 중요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원장에 취임하고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불교’, “불교중흥은 교육과 포교를 통해 하겠다.”는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국불교를 대표하여 한국 사회와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을 만나 그들의 경험과 조직 노하우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와 조직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종교 역시 생존을 염려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종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현대 과학 문명과도 막힘없이 소통할 수 있는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1,700년의 역사를 거쳐 가꾸고 다듬어 온 가람과 소중한 정보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의 영향력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회 지도층에서 불자의 모습은 잘 드러나지 않고, 사찰에서 어린이들과 청년들의 활기찬 웃음소리는 찾아들고 있습니다. 치열한 수행의 결과가 못 중생들의 삶으로 제대로 회향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선지식과 지도자가 바로 서서 종단의 앞길을 밝히고 불교중흥의 묵묵한 한걸음을 걸어나갈 것인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신흥 불교 종단의 비약적인 발전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

인했습니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재정통합과 중앙집권적인 종단운영을 바탕으로 약진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정책 현장에 한정된 자원과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한 것이 그 비결입니다. 우리 종단의 일개 교구 규모일 수도 있는 종단들이 우리 종단 전체가 해 내지 못한 일들을 성사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종단을 비추어 보고 또한 그간의 종단 운영의 경험과 고민을 통하여 보면, 교구단위로 행정 책임제를 시행하는 것이 하나의 수승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중앙 집중식 행정체계로는 종단의 현안과 미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졌고, 심지어 중앙행정의 규모와 절차는 불필요하게 비대해지기까지 했습니다. 더불어 분담금의 규모는 물론 이에 의존한 종단운영은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중앙은 관리의 효율성에 노력하고 교구본사는 중앙의 행정을 나누어 권한과 책임 그리고 실질행정을 늘려가야 할 것입니다.

현 시대는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을 통해 치열한 부의 축적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밀려난 많은 이들은 소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할 방안은 결국 지역 단위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때문에 성공적인 많은 사회적 전략들은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천주교가 마을 단위 성당 건립을 통해 생활에 밀접한 선교와 조직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들이 마을 공동체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한 예라 할 것입니다.

현실은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함에도 우리 종단 구조상 중앙으로 재정을 통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찰과 교구, 종단의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하고 교구단위 재정 집중과 책임적인 행정 집행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은사와 상좌가 전통적인 도제식 관계를 통해 교육과 복지를 책임지던 구조는 이미 낡은 것이 되었습니다. 몇몇 교구에서 모범적으로 시행

하고 있듯이 교육과 포교, 그리고 복지를 교구단위에서 실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구의 행정력과 역량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지혜와 자비를 지역 사회에서 구현해야 합니다.

종단의 미래를 위해 결단하고 본사의 행정력과 실무력 향상을 위해 진력한다면 종단도 교구별 직영사찰 지정 권한 등, 종단 운영의 새로운 가능성을 종도들과 함께 논의해 결정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준비된 교구부터 실질적인 인사와 재정관련 업무를 진행 할 수 있도록 중앙종무기관의 업무 체계를 바꿔 나가겠습니다.

불교중흥의 씨앗이 되겠다고 했던 집행부의 마무리 과제입니다. 해묵은 종단적 과제를 해결하고 중흥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국 여기 계신 여러분의 몫입니다. 신심과 원력, 공심만이 종단의 미래를 밝힙니다. 오랜 경륜과 빛나는 지혜를 내어 주시고 애종심의 열정으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7(2013)년 2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